

신관사또 부임행차, 올해도 화려한 나들이

지역 매 아리

31일 관광단지·광한루원 공연 시작으로 내달 30일부터 본격화

남원시 대표공연인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단이 오는 31일 관광단지와 광한루원 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나들이에 나선다.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단은 올해도 봄과 가을 주말에 정기공연을 펼쳐 관광남원의 위상을 드높이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선 4월 6일 서울에서 열리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사랑의 고장 춘향골 남원의 관광문화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남원의 봄 홍보행사에 참석해 수도권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며, 행사에서는 미스춘향과 춘향제

전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오는 5월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는 제 89회 춘향제를 알릴 계획이다.

본격 공연은 4월 30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관광단지를 출발해 광한루원에서 관객들을 웃고 울리는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고, 6월 하순부터는 광한루원이나 남원에촌에서 마당극만 펼치고,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한달 동안은 공연을 쉬는 시간을 갖는다.

공연단은 지난 2월 7일부터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남원관광협의회 사무실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역량 강화 교육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

며, 선배단원들로부터 개인교습과 단체교습을 통해 타임머신을 타고 300여 년 전 숙종임금 시대로 되돌아가 흥을 돋우고 있다.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단은 정기공연 이외에 고속도로 휴게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초청공연, 전국 유명관광지 등을 찾아 홍보마케팅을 통해 남원의 매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와 남원시관광협의회(위원장 배종철)는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대표공연물로 성장한 신관사또부임행차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광객 체험형 상품개발을 통해 남원관광의 진수를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대표공연인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단이 오는 31일 관광단지와 광한루원 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나들이에 나선다.

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생애주기별 첫 번째 사업으로 건강 새싹심기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세살 버터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 생활습관은 한번 길들여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올바른 태도와 교육이 중요하기에 유아기부터 바른 학습으로 평생 건강을 확보하는 기회로써 건강새싹심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원시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 중 총 20개소에서 신청을 받아 2월부터 7월까지 400여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영양, 아토피예방, 신체활동, 음주폐해예방, 흡연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익수 건강생활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유도해 유아기의 원만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방한천 공공복지 행정대상 수상

순창군 김규완 계장



귀감이 되는 대상자를 발굴·포상해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수여된 방한천 공공복지행정 대상은 한국사회복지공회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방병원(원장 방한천)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 상은 올바른 국가관과 공공복지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 2만 3000명의 시·군·구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및 단체 중에서

정된 김규완 계장은 대상 수상과 함께 시상금 200만원을 받게 됐다. 김 계장은 수상소감으로 "복지행정은 정형화된 틀보다는 현장과 사람이 앞선다"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다양한 계층의 소리 없는 가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복지철학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최대 10% 할인 지역상품권 발행

지역경제 약화 타개 위해

순창군이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약화를 지역화폐 발행으로 타개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안에 순창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민상품권을 발행해 지역내 경기흐름 활성화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 규모는 연 10억원 규모로, 할인율은 평상시에는 7%, 명절(설·추석)에는 10%를 적용한다.

특히 지난 1월 지역화폐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 지역화폐 발행액의 4%를 지원한다고 밝히며, 시·도 지역상품권 발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또 도내 타 지자체에서 발행되는 상품권 할인율이 5%~10%인 점을 감안

했을 때, 이번 발행되는 순창 상품권의 할인율은 관내 지역민들의 상품권 구입을 이끌어낼 만한 수처다.

순창군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순창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시켰으나, 활용도가 떨어지고 의무 구매비율이 높아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군은 이번 상품권 운영은 보완점을 개선해 관련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은 상품권 가맹점 모집대상을 슈퍼마켓과 음식점, 주유소, 이·미용실, 문구점 등 군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품권 가액의 50%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100%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권 판매·환전 대행점을

군내 소재하는 전 금융기관(20개소)으로 확대 추진한다.

군은 상품권 명칭 공모, 상품권 관련 조례 개정, 가맹점과 판매(환전)대행점 모집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올해 9월부터는 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또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민, 상인,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병행 추진한다.

황숙주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주민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상품권 재발행은 지역내 소비 촉진과 자금유출 방지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군정 시책사업과 장려금, 수당과도 연계하여 상품권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다문화가족센터 새 명칭 임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임실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종희)는 2019년 1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해 임실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지난 2009년 1월 개소한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29명의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게 다양한 정착지원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행복한 가정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 바 있다.

앞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가족형태별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를 통합·운영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임실군내 다문화가정은 물론 일반가정, 한부모, 조손가족, 1인가구 등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사랑의날,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들이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한다.

김종희 센터장은 "임실군 유일의 가족전문 통합지원센터로서 지역 모든 가족들이 한데 어울려 서로 존중하며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순창군이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오는 2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이번 조례에는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구성 및 임기, 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리, 공간정보 제공 등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복부자의 방지 조항을 명문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없앴으며, 시설물을 설치·변경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정보가 최신화될 수 있도록 했다.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0일까지 서면이나 전화, FAX,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민원과제 제출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순회교육

임실군이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작업 기계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농작업 중 인명사고와 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6일 중부(임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시작으로 12일까지 권역별 임대사업소 4곳을 순회하며 주

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권역별 임대사업소를 순회하며 농민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농기계 안전 수칙 및 영농철 농기계 보관요령,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방향, 농기계 특성이해 등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동영상 활용하여 농기계 기본이해와 조작법 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농기계 사고는 영농철인 5월~10월

중 농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오전 10~12시, 오후 2~3시 사이에 사고 발생률이 높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전체 사고의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고 주요 원인으로 등화장치 미부착으로 나타남에 따라 군은 야간 도로 주행 시 차량과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부착용 경광등 500여개를 구매해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한편 임실군은 농작업 생력화를 통한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